

지역 소식통

고창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대책 본격 추진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계절적 특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화재 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및 야외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특히 건조한 날씨와 함께 용접·절단 작업 중 발생하는 화재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화재 취약지역을 찾아 △산림 인접지역 및 화재 취약지역 순찰 강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 집중 단속 △건설현장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지도 △군민 대상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 스스로 화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백산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부안군 백산면(면장 박선이)은 지역 하천·하구에 유입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부유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여 깨끗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상류지역에서 유입된 쓰레기와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등을 정비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지역 하천하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부유쓰레기 및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G푸드 산업 본격 육성

2027년까지 국비 12억8000만원 투입... 청년창업·AI 마케팅·특화 농식품 기업 지원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2026년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2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창군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 '고창 특화 G-푸드(장어·복분자·고구마 등) 기반 식품기업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창의 대표 특화자원을 활용한 식품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G-푸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

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활력을 높여가기 위해 기획됐다.

고창군 사업은 '청년이 만드는 G-푸드, 활력 넘치는 고창 푸드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G-푸드 산업 생태계 고도화 △청년 인력 유출 방지 및 정주 여건 개선 △AI 기반 마케팅 지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떠나는 농촌'에서 기회가

있는 '활기찬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고창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극대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다. 고창 특화 G-푸드 기반 청년창업과 농식품 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연구와 새로운 식품 원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창 농산물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데이터 중심 생산모델 보급... 스마트농업 확산 '날개'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가 지난해 구축한 과학영농 통합관제 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2억 원을 추가 투입해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스

마트농업 확산에 속도를 낸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데이터 중심의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국비와 시비 등 총 4억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통합관제 플랫폼과 관제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관내 딸기와 방울토마토, 토마토 등 시설채소 농가 13곳에 환경 모니터링 센서를 부착하고 온도와 습도, 배지 함수율, 배액 전기전도도(EC) 및 산성도(pH) 등의 생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왔다.

올해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데이터 수집 범위를 한층 넓힌다. 기존 품목에 파프리카를 더한 시설채소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춘 세밀한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수집된 데이터를 농가에서 직접 영농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 체계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집합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맞벌이 가정의 아침 보육 공백 메운다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 지원사업' 본격 추진... 오전 7시 30분~9시 보육수당 지급

정읍시가 맞벌이 가정의 아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아침돌봄수당 전국 시행에 발맞춰 마련됐다.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의 약 80%가 오전 9시 이전 조기 등원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의 시간대는 기존 보육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현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번 수당 신설을 통해 실제 보육이 이루어지는 이른 아침 시간대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육 현장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오전 8시 이전에 등원하는 아동이 1명 이상 있고 전담 교사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1일 기준 1만 4008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1개소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 보육 시간 전후에는 기존 반 편성을 유지하되 등원 아동이 적은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반 운영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줬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모두 마쳤으며,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준공

총 6동 온실 구축...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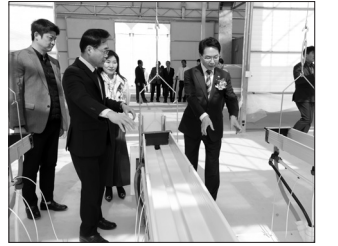
고창군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성송면 관정리 190번지 일원)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군수와 고창군의 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청년농업인,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는 총 4만 9,775㎡ 부지에 조성됐으며, 단동형 2동, 연동형 3동, 스마트팜 1동 등 총 6동(2만1800㎡ 규모)의 온실이 구축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작물 생육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특별 1500㎡ 규모의 온실이 배



정되며, 수박·멜론·딸기·토마토 등 작물 특성에 맞춘 재배 시스템을 적용해 청년농업인의 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앞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12개팀(25명)을 모집했으며, 고창군 거주(주민등록 포함)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관외 거주자도 모집공고 마감 전까지 주소 이전을 완료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참여 폭을 넓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방재정 차질없이 신속 집행" 당부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23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중동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어렵다.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집행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선금·기성금 지급이나 일상경비 배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차질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합동평가는 최근 지자체 간 경쟁 심화로 지표 1~2개 차이로 시군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모든 지표의 100% 달성을 목표로 전 부서가 노력해 달라"며 "부서장들은 합동평가 실적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부진한 지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상반기부터 실적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정화영 권한대행은 "최근 공모사업은 다부처 연계 방식이 많은 만큼 한 부서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올 하반기

확대될 수 있다는 정책동향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이익 공유, 기본사회, 정주여건 개선, 복지·돌봄, 지역활력 사업 등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이 공모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적 대응을 해 달라"며 "부안 마실축제는 안전, 위생, 교통, 주차, 환경정비 등을 빈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어린이 3000명에 친환경 과일 간식 공급

정읍시가 총사업비 3억8,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총 125개소 2,988명의 아동에게 친환경 제철 과일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76개소 소속 원아 2300명과 초·중·고등학교 49개소를 이용하는 학생 698명이다.

제공되는 간식은 사과와 배, 감귤, 복숭아, 자두 등 계절별로 다양한 제철 과일로 구성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